

카드업계, 소비쿠폰 준비 ‘총력’… 서버 증설·보안 강화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시작
편의점·배달음식점 등 사용 가능

수익성 없지만 소비자 불편 방지
서비스 차질은 상표가치 직격탄

카드업계가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버를 증설하는 등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양새다.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과 대형프랜차이즈의 경우 편의점과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은행과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2조 17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오늘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편의점,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뉴시스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단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서버 점검에 착수하고 보안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 혼동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카드사별 가맹점 안내 시스템도 구축한다.

카드업계에는 소비쿠폰이 별도의 수익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 매출 30억 미만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0.5~1.5%, 체크카드는 0.15~1.15%다. 0.05%~0.1%씩 일괄 감소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

난해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연간 4.1% 증가한 1209조3000억원이다. 단기간에 12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지만 지난해 사용액의 0.9%에 그친다. 서버증설 비용과 유지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별도의 비용을 투입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배경에는 상표가치 제고 때문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경험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서버 정지 등의 불편사항이 상표가치 훼손으로 직결되는 만큼 ‘기본만 하자’는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마케팅 경쟁 과열을 지양하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인 만큼 과도한 마케팅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은 카드사가 수혜를 받는 것 처럼 비춰지지만 수익성은 전무한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사업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국내 관광업종 가맹점 결제 고객 대상 ‘경품’

KB국민카드는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내달 8일까지 국내 관광 업종 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KB페이머니 100만원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50만원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10만원 ▲모바일 주유권 5만원 ▲스타벅스 상품권 등으로 구성했다. 총 160명을 추첨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K-바캉스 캠페인에 참여하여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EV 카드 혜택 강화

넥쏘결제금 1.2% 캐시백

현대카드는 현대 EV카드의 혜택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 EV카드의 넥쏘 결제 금액의 1.5%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1.2%를 캐시백한다. 1000만원 이상 결제하고 ‘블루 세이프-오토’를 이용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로 적용한다.

연료 충전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충전 금액의 50%, 80만원 이상 시 100%를 할인한다. 이어 유지관리 업종을 이용하면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를 적립한다.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카드

무이자 할부·금리할인

삼성카드는 다이렉트오토카드 할부로 테슬라 모델 3 RWD를 구매하면 무이자 할부 또는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어 36~60개월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은 할부원금에 따라 무이자 할부 또는 최고 2.5% 금리를 적용한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 이용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금리할인 행사는 카드 승인 및 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일시불 또는 카드 할부 선수금 결제 고객에게는 1.5%를 캐시백한다. 캐시백 혜택은 7월 31일까지다. 일시불 캐시백은 100만원 이상 결제시 받을 수 있다.

/김정산 기자

임기 얼마 안남았는데…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하마평 깜깜

정완규 회장 임기 90일 남짓 남아
차기 회장 당국과 소통 능력 요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사진)의 임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회장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상 회장 자리를 두고 수개월 전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했던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완규 회장의 공식 임기는 오는 10월 5일까지다. 지난 2022년 10월 취임 이후 3년 임기가 90일 남짓 남았다. 지난 선거에서 여신금융협회는 임기 시작 2개월 전에 회장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회장 선발 작업에 나섰다. 원칙대로라면 내달 차기 회장 선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여신협회는 아직까지 차기 회장 선발과 관련해 별도로 논의 중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개편과 수장 인사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업계에서는 예비 후보자들도 금융당국의 기조를 살펴야하는 만큼 선불리 출사표를 던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개편과 수장 인사때까지 여신협회 회장 선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단 관측이다. 여신협회 정관에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회장 선임 시까지 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상 정 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 여신협회는 회장과 상근이사, 회원이사, 감사 등 임원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13대까지 회장이 거쳐갔지만 연임을 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현재로서는 차기 회장 선출까지 정 회장이 공백을 채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앞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또한 금융위로 자리를 옮기기 전 여신협회장직을 1개월여 추가로 수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관료 출신 회장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여신협회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 지난 2010년 이후 총 5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관료 출신이 회장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 회장 또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취임 당시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던 이유다.

차기 회장에게도 금융당국과의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여전업계가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를 허용해달란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KB국민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등록했다.

이밖에도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자금이체 업무 수행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드사 자체 계좌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 이어 캐피탈업권은 중고차 매매 알선과 통신판매중개, 보험대리점업무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한 여전업계 관계자는 “여신협회장은 금융당국과 여전사의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물론 신기술금융사(VC) 등의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흐름인 만큼 차기 회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확대

국내 최초 개발 D-사일런스 서비스
소음 기준치 벗어난 세대 자동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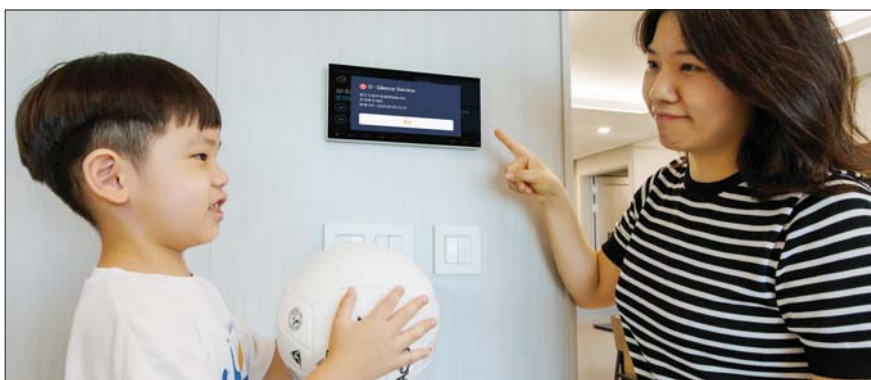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시장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39dB(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치를 벗어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앞서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다. 입주



D-사일런스 서비스가 작동하는 모습. /DL이앤씨

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의 세대가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세대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이 같은 상용화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시장 적용 확대에 나

섰다. 지난 5월 수주한 ‘아크로 한남’을 비롯해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아크로 드서초’ 등 주요 단지에 D-사일런스 서비스를 적용한다. 향후 성수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수주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